

주요국 관광재개 관련 동향 보고

(2020. 5. 26, 한국관광공사)

■ 국가명 : 중국

□ 관광 동향

- 중국 전국 아웃바운드 시장 중단 지속 중(1.24~)
- 중국내 일부 위험 지역(지린성 등)을 제외한 省·市내 국내여행
한해 여행사 영업 재개(3월 중순부터 省·市별 별도 통지 실시)
- 민항국, 현행 1국가 1개 노선 운항 5·1정책(五个一政策) 6월에도
지속으로 해외 출입국 제한 기조 지속유지
 - 중국 언론, 5·1정책 올해 10월까지 지속 가능성 제기, 민항국
일부 항공사에 구두로 관련 사항 사전통지(5.19)
 - 민항국, 항공사에 복항 미확정 항공노선 항공권 예약판매중지
통보(5.19)
- * 5·1정책(五个一政策) : 코로나19 외부유입차단을 위한 1개 항공사, 1개 국가, 1개 노선,
1주, 1편으로 운항제한(민항국 3.28 발표)
- 중국, 해외 역유입 차단을 위해, 비자 및 항공편 단계별 제한
 - 베이징, 국제선 항공사별로 지정된 12개 공항으로 입국(3.23~)
 - (3.26) 기존 유효비자 및 거류증 소지 외국인 입국 금지(3.28~)
 - (3.26) 3월 29일부터 중국 취항 국제선 제한적(주 1회 취항, 외
항사 1개 노선, 中항공사 국가별 1개 노선) 운항 실시

□ 관광재개 조치 및 계획

- 추진시기
 - 국내관광 : 3월 중순부터 省·市별 별도 통지후 실시(省·市내
상품 가능)
 - 해외관광 : 미정

■ 국가명 : 대만

□ 관광 동향

- 해외출입국 전면통제 관련 정부 정책 기조 지속 유지 중
 - 6월말 까지 단체관광객 해외여행 모객 · 송객 · 접객 금지
 - 거류증/외교여권 소지자 외 외국인 입국금지(3.19~) 및 환승금지(3.24~)
 - 8월말까지 전체 학생 및 교직원 공무상 해외출국 금지(지역별 상이)
-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라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3단계 조치 개시
 - 5.20 기준 신규 확진자 13일(역외유입 불포함시 38일) 연속 0명
 - 관광업계 고사 위기 타개를 위해 국내관광 규제부터 완화 시작

□ 관광재개 조치 및 계획

- 추진시기 : 2020.5.27 ~ 12.31
- 주요내용 : 관광방역 3단계 규제완화 계획(5.15 교통부 보도자료 등)
 - (방역관광) 5.27-7.31, 관광업/의료계 공동 방역수칙 준수 현장답사
 - * 방역지침(사회적 거리 유지, 관광버스 정원 50% 탑승, 1인 1실 사용, 개별 도시락 배포, 모든 방문지 소독 실시 등) 준수 조건으로 지역거점별 대규모(5만명) 현장답사단을 운영하여 안심여행 지침 작성 예정(예산 : NT\$3억불, 한화 약 120억원)
 - (안심관광) 8.1-10.31, 일반국민 대상 국내관광 바우처 지급
 - * 6월초 구체적인 최종계획안 발표 예정(예산 : NT\$20억불, 한화 약 800억원)
 - (국제관광객 유치) 10.1-12.31, 국경통제 완화, 환승금지 해제 등
 - * 6월초 관광국-관광협회 협의 예정(예산 : NT\$5억불, 한화 약 200억원)
 - * 상기 일정은 관광국 계획으로 보건당국 협의 후 최종 확정 예정

■ 국가명 : 일본

□ 관광 동향

○ 일본 정부, 추경 예산안 내 대규모 국내관광캠페인 예산 편성(4.7)

[국내 관광수요 환기책 'GO TO 캠페인'] : 경제산업성 예산 1조 6,794억엔

- 감염 종식 여부를 살피며 여행상품 할인을 통한 관광수요환기책 및 홍보활동 실시
 - (Go to travel) 여행사를 통해 기간중 국내여행 상품 구입 소비자 대상 여행대금 1/2 상당의 할인쿠폰 부여(숙박, 지역 기념품, 음식, 시설 등, 최대 1인/1박당 ~2만엔)
 - (Go to Eat) 온라인 예약사이트를 통해 기간중 음식점을 예약, 방문하는 소비자 대상 포인트 제공(최대 1인 1천엔 상당), 등록 음식점에서 사용가능한 프리미엄 식사권 제공
 - (Go to Event) 티켓회사를 통해 기간중 이벤트 티켓 구입 소비자 대상 할인쿠폰 제공
 - (Go to 상점가) 상점가 캠페인 기간중 이벤트 개최, 프로모션 관광상품 개발 등 실시

- 집행시기 미정(긴급사태 선언 완전 해제, 국내 코로나19 조기 수습 전제)

○ 긴급사태 선언(4.8~, 전국 47개현) 단계적 해제 조치 돌입

- 후쿠오카 등 39개현 해제(5.14), 오사카/교토/효고 3부현 해제 결정(5.21)

☞ 도쿄도, 수도권 3현, 홋카이도는 현상 유지

○ 일본여행업협회/전국여행업협회, 여행업계 대응 매뉴얼 1판 발표(5.14)

- 현재 영업중지중인 각 여행사 오프라인 점포 영업 재개 움직임에 대응한 방문 고객 대응 매뉴얼 수준

○ 국내관광 재개는 최소 여름 이후로 추측됨

<참고>

* 국토교통성 대신 기자회견 발언(5.15, 39개현 긴급사태 선언 해제 조치 발표 이후)

- '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된 지역도 최소한 한 달간은 지역간 이동 자제', 국내여행 재개에 신중한 대응 요구
- 'Go To 캠페인' 관련 지방의 경제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안건인만큼 준비가 중요
- 국내관광이 재개될 환경이 갖춰질 경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는 준비할 단계

* 관광청 장관 기자회견 발언

- 'Go To 캠페인'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기간 관련, 현 시점에서 최소 2개월 필요, 감염 상황에 달려있지만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추는 방향으로 준비중

■ 국가명 : 베트남

□ 관광 동향

- (국내관광) 국내여행 촉진을 위한 “Vietnamese People Travel in Vietnam” 캠페인을 6.1일부터 연말까지 실시 예정
 - 입장료, 숙박시설 및 항공권 등 할인 행사 준비 중
- (국제관광) 3.22일 이후 모든 해외 입국을 금지 중
 - (항공재개 움직임) 2.29일 인천발 하노이행 아시아나 항공기 회항 이후 종료된 한국과 베트남 정기 노선이 6월부터 재운항 예정
 - * 베트남 항공은 6월부터 베트남(하노이, 호치민)-한국(인천) 노선을 주 4회로 재운항 계획. 단, 베트남 정부의 지침에 따라 승객 탑승은 베트남에서만 가능
 - (인바운드) 4월 베트남 방문 외래 관광객은 2만 6천 여명으로 전년대비 98.2% 감소
 - (시설격리) 모든 베트남 입국자들에 대한 시설 격리 14일 의무화
- (현지여행사) 해외여행 상품 판매 금지로 인력 감축 및 재택근무 사례 다수
- (현재 코로나19 상황) 5.20일 기준, 총 확진자는 324명, 사망자 0명을 기록 중이며, 34일 연속 지역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
 - * 단, 해외 입국 자국민에 의한 확진자는 발생 중
 다만, 시설 격리자가 1만 328명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현재도 30인 이상 모임은 금지하는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유지 중

□ 관광재개 조치 및 계획

○ 추진시기 : 미정

○ 주요내용

- 「코로나19 감염증 방역에 관한 정부상임회의」에서 관광에 대해 언급(5.15)

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정부상임회의 응웬 쉰언 폭 정부총리의 결론 (한글 번역문)

4.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병원균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해외 관광객을 아직 수용하지 않을 것.
군대,公安, 의료 인력은 계속해서 입국자를 면밀히 통제하고 시설 격리를 실시하며 동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.
투자자, 기술 전문가, 숙련 노동자, 기업 관리자, 공무 집행 공무원 및 베트남 내 유학생은 입국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거나 적합한 격리를 실시할 것. 또한 육로 국경선상 샛길을 통한 입국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할 것.
11. 국내 관광을 촉진할 것. 문화체육관광부는 주관기관으로서 외교부, 보건부 및 관광 홍보 기관과 협력하여 조건이 허락하면, 외국인 관광객, 우선적으로 동 감염증 통제가 잘 이루어진 국가 및 지역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해 수반되는 업무를 준비하고 점진적인 출입국 제한 완화 및 통상, 친지 방문, 관광, 양자 무역투자 등을 위한 일부 항공편 운항 재개 시기 및 원칙을 연구, 제안하여 총리가 이를 검토 및 결정하도록 보고할 것.

○ 기타 참고 사항

- 베트남은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매우 강경한 조치를 취한 국가임
 - * 중국인 포함 최근 14일 내 중국 방문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 금지 (2.2일)
 - * 한국을 여행 자제 국가로 지정 (2.21일)
 - * 모든 해외 입국 금지 (3.22일)
-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의료시설로 코로나19 확산 시 대처가 어렵다는 우려가 팽배하여 국민들은 폐쇄적인 방역 정책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음. 베트남 정부가 이러한 정책 기조를 쉽게 바꾸기 어려울 것임.

■ 국가명 : 프랑스

□ 관광 동향

- (3.17~5.10) 프랑스 전역 이동제한령 발효 및 시설 영업정지
- (5.11~현재) 보건비상사태 2개월 연장(~7.10) 및 전염병 경보 3단계(최고단계) 지속, **국내외 여행중단, 국경통제 유지**(EU 지역 6.15일까지로 연장, 비EU 지역 봉쇄 지속), 오를리 공항(국내 및 유럽노선 거점) 6.26일부터 운영재개 검토
- 확산 감소세, 경제 위기 심화에 따른 완화 결정으로 엄격한 조건 하 이동제한 조치의 단계적, 지역별 해제* 및 경제활동의 점진적 재개

* 단계적 해제 : (1단계) 5.11 ~ 6.1 / (2단계) 6.2 ~ 여름까지

* 지역별 해제 : **바이러스 확산 정도에 따라 위험 순으로 전국을 적색과 녹색으로 구분**(5.7), 지역별 조치, 적색지역의 경우 휴교 유지 등 보다 엄격한 수칙 적용
 ☞ 파리 및 일드프랑스(수도권) 지역 포함 전국 4개 지역 적색 경보

<주요 조치사항>

- 6.1까지 재택근무 유지 및 대인접촉 제한, 거주지 반경 100km 이상 이동금지 (재택근무 불가 시, 노동부의 직원 안전보장 필수지침 준수 : 근로자간 거리 두기, 인당 4㎡ 이상의 근무 공간 확보, 사무실 및 손잡이 소독(일 3회, 15분간),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시 근무시간이 기재된 고용주의 확인서 지참 등)
- 교통편 평균 50% 감축운행, 지하철 및 외곽열차(RATP) 30~75%, 지역급행열차(TER) 7~20%, 고속열차(TGV) 최대 40% 수준까지 운항(단, 5월 말 기준)
- 적색지역 공원 폐쇄 및 중·고등학교 휴교 유지
- 식당, 영화관, 극장 등은 운영 중단 지속
- 공공장소 내 10인 이상 모임 금지, 대형축제·행사·박람회 등 9월까지 금지 등

- 한편, EU 집행위는 코로나19에 따른 심각한 경제위기 봉착을 우려, 회원국에 관광산업 정상화를 촉구, 단, 최소 3단계*에 걸쳐 EU 역내 관광을 시작으로 점진적 확대토록 권고(5.13)

* △역내 이동제한 해제 △제한적 역외 이동제한 해제(코로나19 확산이 EU와 유사한 수습국면에 있는 국가 대상 해제) △모든 국가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

* 단계적 이동제한 조치 해제와 함께, 대중교통 및 공항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, 대중교통 등 이용자 수 제한, 감염자 추적 어플리케이션 도입 등을 권고

□ 관광재개 조치 및 계획

○ 추진시기 : 2020. 미정 ~

○ 주요내용

- 에두아르 필립 국무총리, 교통부 장관 등 대국민 담화 및 인터뷰를 통해 당분간 해외여행 자제를 수차례 권고
- 올 여름휴가(7~8월)는 국내 및 해외프랑스영토(Outre-mer)만 가능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며 국내여행 독려(5.14, 총리)
- 5.20기준, 6.15까지 EU내 국경봉쇄 유지중이며, 6.15일 이후 EU를 중심으로 순차적 봉쇄 완화 가능성 있으나, 아직 정부 공식발표 無 (5월 말, 정부 추가지침 발표 예정)
- (국내여행활성화) 지자체, 관광활성화 목표로 중하위 소득계층에 관광수표(여행상품권) 발행 정부 건의, 코로나19 최대피해지역(Grand-Est) 주민 대상 체크바캉스(Cheque-Vacances) 1만장(장당 500유로 상당) 배포
- 여름휴가 예약을 위한 고속열차(TGV) 등 기차예매시스템 운영 재개 (단, 6.1까지는 지역간 이동 금지, 5월 말 정부 추가지침 확인 필요)

○ 기타 참고사항

- 5.20부터 비EU회원국으로부터 입국하는 프랑스 국적자 및 외국인 장기체류자 대상 자택 혹은 본인이 선택한 별도 장소에서 14일간 자발적 격리

■ 국가명 : 이탈리아

□ 관광 동향

- (3.10 ~ 5.17) 이탈리아 전역 이동제한령 발효* 및 시설 영업정지
 - * 롬바르디아주 등 14개 지역은 3.8부터 발효
- (5.18 ~ 현재) 극심한 경제난*의 조속한 타개를 위해 이동제한령 및 국경통제의 단계적 해제

* '20년 경제성장률 -9.5%, 연말까지 부채는 170%에 달할 것으로 전망

- * (지역이동) 주(Region)간 이동 허용(6.3~), 생겐 협정국 출입국 허용(6.3~),
- * (상업활동)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프로토콜(별첨) 적용 하 재개(5.18~)
- * (문화관광시설) 해수욕장 및 박물관 대중 개방(5.18~), 영화관, 극장 영업재개(6.15~)
- * (스포츠시설) 헬스장, 수영장 등 스포츠 센터 재개(단, 프로축구는 미정)(5.25~)

<방역지침>

- (매장 및 식당)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
 - 근무자 보호장비 착용 및 고객 마스크 착용 필수
 - 영업장 테이블 간격(2m) 유지 및 수용가능 인원 제한
 - 고객 대기용 충분한 옥외 공간 마련 (고객사이 안전거리 4m이상 확보)
- (해수욕장) 국립고등보건연구소(ISS) 및 산업재해보험공사(INAIL)가 마련한 방역 지침 준수
 - 백사장 파라솔 최소 간격(5m) 유지 및 수용가능 인원 제한
 - 공용 풀장 이용 및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은 스포츠 활동 금지

□ 관광재개 조치 및 계획

- 추진시기 : 2020. 6. 3 ~
- 주요내용
 - " 콘테" 총리 신규 총리령(Fase 2, 상기 표)에 따라 아웃바운드 재개
 - * 6.3부터 생겐 협정국 관광객 입국 및 자국민 출국 허용. 단, EU 위원회의 추가 지침 발표일(6월 중순 예정) 이전까지는 국가별 출입국 통제 상황 상이
 - * 출입국자 모두 14일간의 의무 격리사항 폐지(6.3~)
 - * 인·아웃바운드관광 허용하되, 폐쇄공간 및 다중밀집시설 내 마스크 착용 권고, 상업시설 및 해수욕장 등 필수 방역지침은 상기 표 및 별첨과 같음
- 기타 참고사항
 - 5.18일, 1일 확진자 451명으로 최저치 기록하였으나, 봉쇄 완화 하루 새 전일 대비 2배 이상(813명)의 확진자 증가

■ 국가명 : 스페인

□ 관광 동향

- 5.24 종료 예정인 국가비상사태 6월 말까지로 1개월 연장
- 5.18부터 4단계(0~3단계, 단계별 최소 2주 간격)에 걸쳐 지역별 점진적 봉쇄 완화, 국내여행 제한, 국외여행중단, 국경통제 유지

<p>* 전 국민의 70%, 준비단계(0단계)를 지나 봉쇄 완화 1단계 진입(5.18)</p> <p>* 마드리드 자치주 전역, 바르셀로나, 카스티야이레온 자치주 일부는 1단계 진입 불허되었으나 일부 조치(△400㎡ 미만 소규모 상점 제한적 영업 △도서관 및 박물관 제한적 운영 △장례식 진행(실내 10명, 실외 15명) △모든 교육기관 종사자 업무 재개 허용(소독 및 관리, 행정업무 및 수업준비, 연구를 위한 출근) 등) 완화</p> <p><봉쇄 완화 1단계 주요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령대별 외출 시간 유지, 최대 10명 모임 가능(마스크 착용, 2m 안전거리 유지) · 동일 지역 내 자동차 이동 가능 · 노천시장 영업(평상시 점포수 25%, 수용인원 1/3까지) · 야외테라스 영업(테이블 개수 50%까지, 테이블당 최대 10인) · 모든 교육시설 업무 재개(소독 및 관리, 행정업무, 수업준비) · 관광숙박업소 영업(공용 부대시설 이용 금지), 야외레저관광(예약제, 그룹당 최대 10명)
--

□ 관광재개 조치 및 계획

- 추진시기 : 2020. 미정 ~
- 주요내용
 - 관광산업은 스페인 GDP의 12.3%를 차지, 관련 종사자 260만 명 등 주요 경제산업으로, 정부는 여름휴가를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추진 및 보건대응체계 관련 대외 긍정적 이미지 구축으로 관광산업 회복을 도모하고 있음
 - 5.19일 기준 1일 사망자 69명으로 4.2일(961명)대비 감소세 확인, 6월 말까지 단계적인 봉쇄 완화예정으로, 5.23일 기준 7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 계획 발표
 - 스페인 호텔숙박연합(CEHAT) 코로나19 확산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안전수칙 기준 충족시설 대상 인증서 발급 검토
 - 식당, 카페 등 매장 내 테이블 수 축소, 종업원 및 고객간 칸막이 설치 등 방안 검토, 모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등

국가별 관광재개 관련 동향 보고

(2020. 5. 26, 한국관광공사)

국가 (확진자수)	내 용	
중 국 (82,992명)	국내	○ 베이징(4.17)·상하이(3.30)·산둥(3.31)·산시(陝西)(3.16)·장쑤(3.23)·광둥(5.15) 등 지역 省·市内 여행 한해 영업 재개 ○ 여행사 영업 재개 관련 문화여유부 및 지역 문화여유청 등 관련 부서 통지 후 가능
일 본 (16,623명)	국내	○ 국내관광활성화 “GO TO 캠페인” 1조 6,794억엔 추경 예산 편성(4.7) * 여행할인쿠폰, 음식점 포인트 제공, 이벤트 할인쿠폰, 쇼핑 지원 등 * 집행시기 미정(긴급사태선언 완전 해제, 코로나19 조기 수습 전제 필요)
대 만 (441명)	국내	○ (방역관광) 5.27-7.31, 관광산업 종사자(5만명) 방역수칙 준수 현장답사 ○ (안심관광) 8.1-10.31, 일반국민 대상 국내관광 바우처 지급
	인바운드	○ (국제관광객 유치) 10.1-12.31, 국경통제 완화, 환승금지 해제 등
베 트 남 (325명)	국내	○ Vietnamese People Travel in Vietnam 캠페인(6.1~연말) * 항공권, 호텔, 입장료 할인 등 ○ 하노이 시, “safe - friendly - quality - attractive” 캠페인 추진 ○ 다낭 시, “Danang Thank you” 캠페인 추진
	인바운드	○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정부상임회의(5.15) -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 수용 불가 - 코로나19 우수 대처 국가 대상 입국 허용 방안 검토
프 랑 스 (145,297명)	국내	○ 5.11일부터 점진적 이동제한령 해제 - 100km 이상 국내 이동 불가
스 페 인 (235,400명)	국내	○ 6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개방 예정 - 한 지방 내 자동차 여행 허용, 다른 지방으로 이동 불가
	인바운드	○ 총리, 7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 계획 발표(5.23)
이탈리아 (230,158명)	국내	○ 5.18일 일부 봉쇄조치 완화
	역내 인바운드	○ 6.3일부터 쉹겐 협정국 관광객 입국 허용 및 14일간 격리 면제